

Brief

2016. 04. 19

집필자

이강진 (창조경제산업연구부 연구위원)

김영윤 (창조경제산업연구부 전문연구원)

전라북도 맞벌이 가구 실태 및 의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rief

CONTENTS

전라북도 맞벌이 가구 실태 및 의식

1. 들어가며	03
2. 전북 맞벌이 가구 현황	04
3. 전북 맞벌이 가구 실태	05
4. 전북 맞벌이 가구 의식	08
5. 마치며	11

전라북도 맞벌이 가구 실태 및 의식

1.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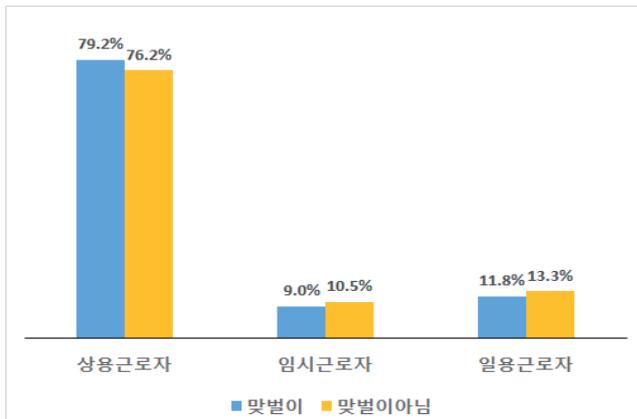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세분화, 다양화, 여성의 고학력화 여성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로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가 확대되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트렌드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일반적으로 맞벌이 이유는¹⁾ ‘생활비가 부족’, ‘여유자금 확보’, ‘각자 일을 가지기 위해’가 주 요인으로 알려져 있음
- 맞벌이 가구 증가는 여성의 사회참여, 잠재노동력 확보를 통한 성장잠재력 증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육아문제, 가사관리 부담 등으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 문제로 인해 사회적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에 따라 맞벌이 가구들의 직장과 가정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존 고용관련 제도 보완 필요성을 인식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남녀고용평등법)’을 201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남녀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명시하고 있음
-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명시된 일·가정양립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지자체 차원의 맞벌이 가구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가 축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자체 관련 연구 및 자료가 제한적이므로 기존 사회조사에 나타난 자료를 활용하여 전북의 맞벌이 가구 현황 및 이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함
 - 맞벌이 가구에 대해 궁금해 하는 측면은 ①맞벌이 가구는 맞벌이 아닌 가구보다 부유할까? ②시간에 대해 얼마나 부담을 느낄까? ③자녀교육에 대해 만족할까? ④맞벌이 가구가 더 행복할까? ⑤맞벌이 부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 본고에서는 전라북도 맞벌이 가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2015 전라북도 사회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함

1) 이 이외도 여가활용형(자신의 취미나 여가활동을 위해 직업을 가지는 형태)이 있음

2. 전북 맞벌이 가구 현황

□ 전북 45.3%가 맞벌이 가구이며 소득, 학력이 높을수록 맞벌이 비율 높음

- 전북 가구의 45.3%가 맞벌이 가구이며 학력별 맞벌이 가구 비율을 보면 고졸 이하 39.8%, 대학교 이상 55.0%로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맞벌이 비율이 증가함
- 고소득으로 갈수록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높아짐(단, 600만원 이상 고소득에서는 감소)
 - 월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의 경우 맞벌이의 비율은 27.6%, 400~600만원(66.0%), 600만원 이상(57.0%)으로 고소득일수록 맞벌이 가구 비율이 높아지지만 최고소득층으로 구분된 600만원 이상은 감소함
 - 맞벌이가 생계유지형, 내조형, 자아실현형, 여가활용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고소득층에서는 일정소득이 담보되기 때문에 맞벌이 필요성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 근로형태별 맞벌이 가구를 보면 맞벌이 가구의 상용근로자 비중이 소폭 높음
 - 근로형태별로 보면 맞벌이 가구는 맞벌이가 아닌 가구에 비해 상용근로자 비중이 높고(맞벌이 79.6%, 맞벌이 아님 76.2%) 일용 및 임시근로자 비중이 낮아 고용의 안정성이 약간 높음



- 연령별 맞벌이 가구 비율은 장년층이 가장 높고 노년층이 가장 낮음
 - 청년층의 맞벌이 비율은 44.9%이며 중년은 52.7%, 장년은 55.9%, 노년층은 21.8%로 장년층의 맞벌이 비율이 가장 높음
 - 연령별(10세 단위로 보면 40대의 맞벌이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60.0%) 30대, 50대 순

〈그림 1〉 소득별 맞벌이 가구



3. 전북 맞벌이가구 실태

1) 소득, 소비지출

□ 맞벌이가구는 소득이 높으나 가구지출 또한 많음²⁾

- 맞벌이 가구는 맞벌이 아닌 가구에 비해 고소득 비중이 높고 저소득 비중이 낮음
 - 200만원 미만 저소득 비중이 맞벌이의 경우 19.5%, 맞벌이 아닌 경우 42.9%로 맞벌이의 저소득 비중이 낮으며 노년층이 주를 이룸

〈표 1-1〉 맞벌이와 맞벌이 아닌 가구의 월평균 소득

[단위 : %]

구 분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맞벌이	19.5	44.2	24.6	11.7
맞벌이 아님	42.9	39.1	10.6	7.4

자료 : 2015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자료 분석

- 가계지출을 보면 맞벌이 가구가 맞벌이 아닌 가구에 비해 월평균 52만 5천원 더 지출
 - 청년층의 맞벌이 가구는 맞벌이 아닌 가구에 비해 월평균 89만 7천 6백원을 더 지출하며 모든 연령층에서 맞벌이 가구 지출이 더 많음
- 의료비는 맞벌이 가구가 맞벌이 아닌 가구에 비해 월평균 1만 1천 4백원 덜 지출함
- 총 여가비용은 맞벌이 가구가 맞벌이 아닌 가구보다 월평균 2만 4천 5백원 더 지출함
 - 49세 이하는 맞벌이 가구가 맞벌이 아닌 가구에 비해 총 여가비용을 더 지출하고 있으나 50세 이상은 맞벌이 가구가 맞벌이 아닌 가구에 비해 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2〉 맞벌이와 맞벌이 아닌 가구의 월평균 지출비용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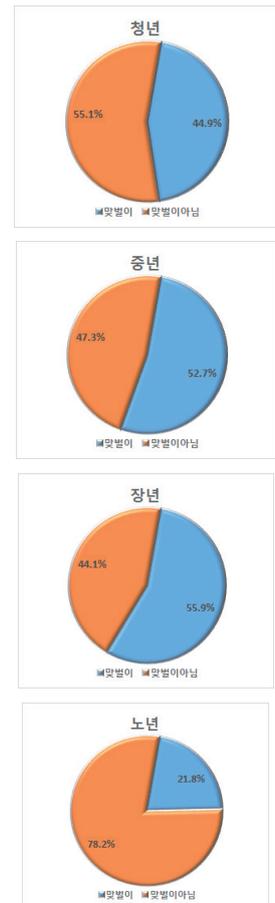
[단위 : 천원]

구 분	월평균 가구지출액 차이	월평균 의료비 차이	월평균 총여가비용 차이
20~29세 이하	896.62	30.96	30.35
30~39세 이하	275.22	-0.32	18.04
40~49세 이하	283.21	-2.14	30.32
5~59세 이하	311.34	4.92	-14.51
60세 이상	118.22	-24.56	-1.54
합 계	525.12	-11.43	24.46

자료 : 2015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자료 분석

주1) 표값 = [맞벌이 가구 생활비 지출액 - 맞벌이 아닌 가구 지출액]

〈그림 2〉 연령별 맞벌이 가구



2) 엘리자베스 워런 교수(미 하버드 대)는 저서 '맞벌이의 함정'에서 맞벌이 부부의 파산자 증가현상 지적하며 맞벌이 가구가 부유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함

2) 자녀교육

□ 맞벌이 가구는 학교생활 만족도는 낮고 자녀수가 전 학령인구에서 많음

- 맞벌이 가구의 학교생활 만족도³⁾는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맞벌이 가구는 맞벌이 아닌 가구에 비해 교육내용(-2.1%p), 교육방법(-3.0%p), 교우관계(-1.4%p), 교사.교수와의 관계(-1.3%p), 전반적인 학교생활(-4.4%p)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만족도가 떨어짐(전공만족도 +0.4%p)
- 맞벌이 가구는 확대가족 형태를 나타내며 평균자녀수도 많음
 - 일반적으로 맞벌이 가구는 가사노동, 자녀양육을 위해 확대가족 형태를 보여 맞벌이 가구의 2세대가구 비중(63.4%)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맞벌이 아닌 가구(45.9%)를 크게 상회
 - 맞벌이 가구의 자녀수는 맞벌이 아닌 가구의 자녀 수보다 전 학령 인구에서 많음

〈표 1-3〉 맞벌이와 맞벌이 아닌 가구의 평균 자녀 수

[단위 : 명]

구 분	미취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대학원
맞벌이	0.24	0.29	0.18	0.21	0.20
맞벌이 아님	0.24	0.21	0.08	0.08	0.11
합계	0.24	0.25	0.13	0.14	0.15

자료 : 2015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자료 분석

3) 시간 및 여가생활

□ 맞벌이 가구는 생활시간, 여가시간이 부족, 여가비용을 더 지출하지만 만족도는 낮음

-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총 여가비용은 12만 8천 9백원이며 맞벌이 아닌 가구보다 월평균 2만 4천 4백원 더 지출하고 있음
 - 청년층 맞벌이 가구 여가생활 만족도는 높으나 40~49세 이하는 맞벌이 가구가 여가비용을 월평균 3만 2백원 더 지출하고 있지만 만족도는 높지 않음
- 맞벌이 가구의 여가에 대한 만족도는 19.2%로 맞벌이 아닌 가구에 비해 1.0%p 낮음
 - 청년층 맞벌이 가구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높지만 노년층 맞벌이 가구의 여가 만족도는 낮음
- 주중, 주말 모두 맞벌이 가구는 생활시간압박을 더 받고 있음
 - 맞벌이 (아닌)가구는 주중, 주말에 각각 79.5%(42.7%), 65.1%(44.2%)가 생활시간 압박을 받고 있음
 - 맞벌이 가구는 맞벌이 아닌 가구에 비해 '항상 생활시간 압박을 받고 있음' 의 주중, 주말 비율이 각각 17.4%p, 8.9%p 높음

3) 만족도 = 매우만족+약간만족

- 주중에 생활시간 압박을 항상 받고 있는 청년층 맞벌이 가구 비율이 맞벌이 아닌 가구에 비해 18.0%p나 높음[장년층(+15.7%p), 중년층(+12.1%p), 노년층(+11.8%p)]



<그림 3> 생활시간 압박(주중(왼쪽), 주말·공휴일(오른쪽))

○ 맞벌이 가구는 맞벌이 아닌 가구에 비해 평일에 1시간 정도 여가시간이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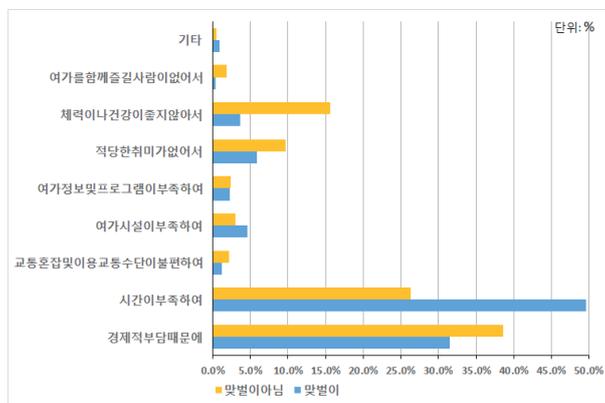


- 맞벌이 가구의 여가시간은 평일 123.3분, 주말 218.5분으로 맞벌이 아닌 가구에 비해 평일 59.8분, 주말 25.7분 적음

- 청년층 맞벌이 가구 평일 여가시간은 122.5분으로 맞벌이 아닌 가구에 비해 24.9분 적게 나타났으며 주말 여가시간은 241.3분으로 맞벌이 아닌 가구에 비해 44.7분 많음

□ 맞벌이 가구가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부족

○ 맞벌이 가구의 여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부족이 가장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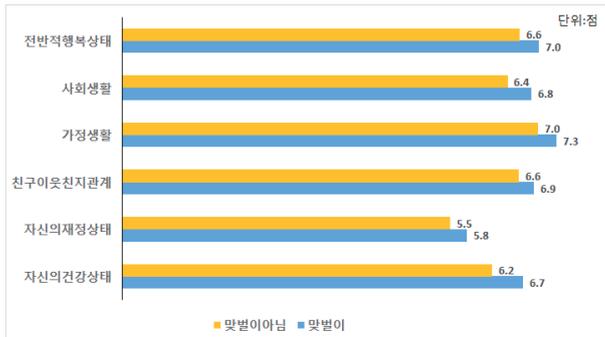
- 맞벌이 가구는 '시간이 부족하여(49.7%)' 여가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며 다음으로 '경제적 부담 때문(31.5%)'임
- 반면, 맞벌이 아닌 가구는 '경제적 부담 때문(38.6%)', '시간이 부족해서(26.3%)',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15.6%)'임

4. 전북 맞벌이 가구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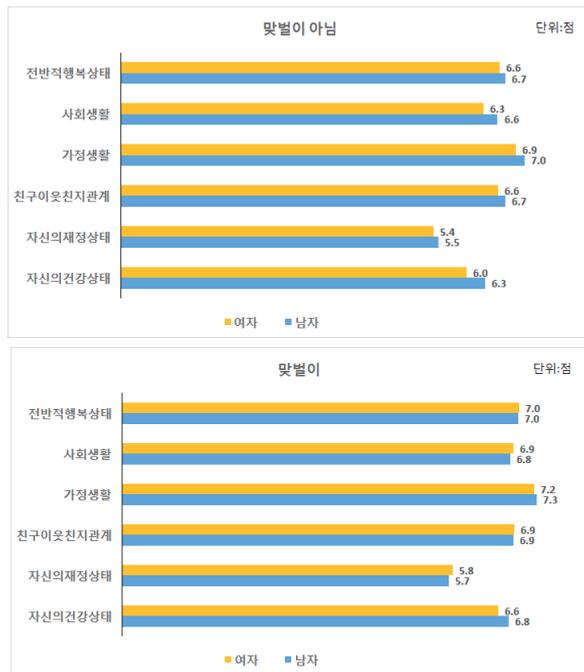
1) 삶에 대한 만족도

□ 맞벌이 가구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높음, 맞벌이 가구 남녀간 만족도는 유사하게 나타남

- 맞벌이 가구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는 7.0점으로 도민 전체 평균(6.6)보다 높음
- 맞벌이 가구가 맞벌이 아닌 가구에 비해 전 분야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0.3점~0.5점 높음



- 맞벌이 가구의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는 맞벌이 아닌 가구에 비해 0.4점 높으며 특히,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차이가 0.5점으로 가장 큼
- 한편, 맞벌이 가구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맞벌이 아닌 가구보다 0.3점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맞벌이로 인한 가족관계의 문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맞벌이 남녀간 삶에 대한 만족도 차이는 거의 없으며 여성의 사회생활과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남성에 비해 높음
 - 맞벌이 가구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는 맞벌이 아닌 가구에 비해 높으며 맞벌이의 경우 남녀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맞벌이 아닌 경우는 남녀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맞벌이 가구 여성의 경우 사회생활과 재정상태 부문에서 남성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맞벌이 아닌 가구의 여성이 사회생활 만족도가 남성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과는 대조적임



□ 동일 소득수준에서 맞벌이 가구의 사회적 계층 인식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동일소득 수준에서 맞벌이 가구의 사회적 계층 인식정도는 상대적으로 더 낮음
 - 월소득 200~400만원 가구의 중산층 인지 비율을 보면 맞벌이 가구는 12.6%, 맞벌이 아닌 가구는 18.8%이며 월소득 400~600만원 가구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각각 36.0%, 42.9%에 달해 동일 소득에서 느끼는 사회적 계층은 맞벌이 가구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1-4〉 사회계층 · 맞벌이 · 소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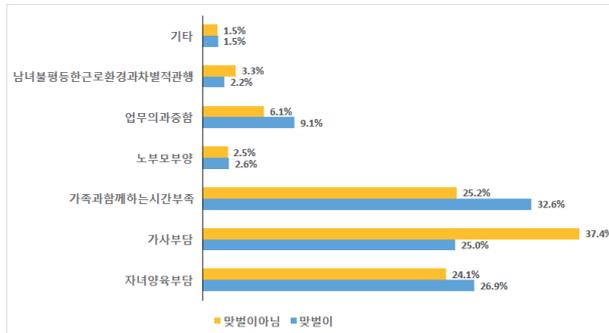
구분	맞벌이				맞벌이 아님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빈곤층	18.3	6.3	4.3	0.0	21.5	5.8	1.1	3.7
서민층	66.6	76.3	56.2	44.8	63.2	71.0	50.3	22.6
중산층	7.9	12.6	36.0	50.6	9.2	18.8	42.9	70.5
부유층	0.4	0.1	1.0	0.0	0.1	0.7	3.0	3.3
잘모르겠다	6.9	4.7	2.5	4.5	5.9	3.7	2.7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2015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자료 분석

2) 일·가정 양립

□ 맞벌이 가구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을 일·가정 양립의 걸림돌로 지적

- 일·가정양립의 걸림돌이 되는 요인 가운데 맞벌이 가구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부족(32.6%)'을 가장 큰 문제로 제기하였으며 다음으로 '자녀양육부담(26.9%)', '가사부담(25.0%)' 순이었음



- 반면, 맞벌이 아닌 가구는 '가사부담(37.4%)'을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하였으며 다음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부족(25.2%)', '자녀양육부담(24.1%)' 순으로 나타남
- 맞벌이 가구내 일·가정생활 병행 어려움에 대한 남녀 인식차이를 보면 남성은 '자녀양육부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부족', '업무의 과중함' 순이며 여성은 '가사부담'과 '남녀불평등한 근로환경과 차별적 관행'을 더 중요한 요소로 지적함
- 남녀간 인식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부분은 '가사부담'이었으며 노년층으로 갈수록 그 차이는 크게 나타났으나, 청년층 남성은 '가사부담' 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부족'을 더 중요한 요소로 지적하여 청년층에서도 남녀간 큰 차이를 보임

〈표 1-5〉 맞벌이 남녀 일·가정양립 문제 인식 차이

[단위 : %p]

구분	자녀양육부담	가사부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부족	노부모부양	업무의 과중함	남녀불평등한 근로환경과 차별적 관행	기타
20-29세 이하	9.4	-13.9	13.1	0.0	0.0	-5.3	-3.2
30-39세 이하	1.5	-6.3	4.7	0.6	1.9	-1.9	-0.6
40-49세 이하	8.3	-13.3	5.1	-1.4	1.9	-1.1	0.4
50-59세 이하	6.2	-16.6	8.3	0.2	2.9	-0.6	-0.4
60세 이상	-1.3	-18.9	15.1	3.0	3.4	-1.6	0.3
합계	2.8	-12.3	7.4	0.1	3.0	-1.1	0.1

자료 : 2015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자료 분석

주1) 표값 = [맞벌이 남성 - 맞벌이 여성]

5. 마치며

□ 맞벌이 가구는 생활시간 압박과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며 소득이 높은 반면 지출금액도 높음

- 전라북도 맞벌이 가구와 맞벌이 아닌 가구의 특성을 비교하면
 -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높으며 가계지출도 많은 반면 동일수준에서 느끼는 경제·사회적 지위는 낮음
 - 맞벌이 가구는 생활시간 압박을 더 받고 있으며 평일 여가시간은 1시간 적음
 - 맞벌이 가구는 확대가구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자녀수(학령자녀)도 많은 반면 학교생활 만족도 전 부문에서 낮아 맞벌이 가구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맞벌이 가구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높음
 - 맞벌이 가구는 일·가정양립에 있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생각함
- 맞벌이 가구가 생활시간 압박과 여가시간의 부족, 그리고 자녀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반면 삶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 맞벌이로 인한 부정적 측면을 소득증가와 여성의 사회활동참여로 완화하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삶에 대한 만족도 중 가정생활의 만족도가 높아 맞벌이로 인한 경제적 여유, 여성의 자아실현 등이 가정생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맞벌이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자녀양육 및 교육, 여가시간 부족, 가사노동, 가족 간 같이 지내는 시간 부족)을 완화하는 것으로 보임
- 맞벌이 가구가 일·가정양립을 성공적으로 병행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과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발굴이 필요함
 -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지역 여가·체육·문화 등 행사를 가족 중심 형태로 기획(가족 달리기, 가족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대회, 가족바둑대회, 가족 위한 콘서트 등)하여 개인만이 아닌 가족 전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가족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함
 - 자녀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복지차원의 금전적 지원 이외에도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맞춤형수요보육(보육시간 연장, 방과 후 아동 지원 등), 마을(아파트)단위 지역 돌봄이 확대 지원 등 추진 필요

참고자료

전라북도, 2015, '2015 전라북도 사회조사'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쭈로 1696(효자동3가 1052-1)

Tel.063-280-7100 Fax.063-286-9206

www.jthink.kr